





# “서민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 최기선 인천광역시장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 바뀌지 않으면 아무 것도 성취할 수 없다.”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최기선 인천광역시장의 말이다. 30년 가까운 정치생활을 이끌어 오는 동안 최기선 시장은 무수히 많은 고난과 역경과 마주해야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정의를 위해 스스로를 헌신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3번의 인천시장을 맡아 오는 동안, 정치적 욕심(?)마저도 뒤로하고 오로지 인천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서민에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고자 항상 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서민의 생활에 눈길을 주는 최기선 시장이기에, 인천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민선시장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일은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르겠다. 서민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인천을 21세기의 첨단 정보·관광·무역 도시로서 국제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하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최기선 시장이야말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행정가, 정치인이 아닐까.

### ▶ 1999년 인천시의 주요 사업 계획은?

1999년은 2천 년대를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2천 년대에 가는 기대는 남다릅니다.

우리 인천 역시 2천 년대에는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최고의 관광도시, 첨단 산업도시, 세계 주요도시와 연결되는 첨단 항구도시가 되기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째로, 인천 발전의 원동력인 인천시민들을 위해 더욱 편리하고 살기 좋은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인천 시내 지하철 완전 개통과 함께 모든 교통운영 체계를 시민의 실질적 편의 위주로 바로 잡아나갈 것입니다.

또 시민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건설, 그리고 192억이 투자되는 경서동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시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호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생활이 어려워져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사업과 저소득 특별 취로사업 등 서민 생계 안정대책도 강화하고 경로연금을 지난해보다 13%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지원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의 기금을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기술지원과 구조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하며, 소프트웨어 산업과 벤처기업들이 창업할 때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 지식산업을 선도할 송도 미디어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난 해 일부는 매립을 완공했고 금년에 복토를 거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모든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송도 앞 바다에 거대한 땅이 솟아올라 인천 시민의 삶의 터전을 넓혀가고 꿈과 의지를 실현할 새로운 장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광 중심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 2001년 국제공

향이 개항되는 용유·무의도 일대에 국제적인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 수준에 걸맞는 관광자원 개발과 정비, 국제공항 개방과 연계된 공항도시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해권 첨단 물류시스템을 갖춘 항구로 탈바꿈하기 위해, 북항개발, 남항확대, 경인운하건설 착공, 친수공간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하는 전국 체전이 16년만에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번 체전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체전’, 시민이 함께 준비하고 맞이하는 ‘화합체전’, 체육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예술체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 휴식공간 확충 등 인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어야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 사업도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 ▶ 1993년 이후 인천 시장직을 세 번째 맡으

셨고, 특히 지자체 이후 계속 민선 시장으로서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만큼 인천시민들의 신뢰가 두텁다고 생각되는데, 인천시민의 복지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시행하신 사업과 그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993년 제 7대 인천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선인학원 시립화, 송도 신도시 착공 및 복합형 건설 등 세계 속의 인천 건설 추진, 지하철 1호선 착공, 깨끗한 인천 만들기, 해외시장 개척, 7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관료·권위 주의를 탈피하고 시민 위주 행정 실현 등 인천의 독자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인천시민 여러분께서 믿고 인정해 주셔서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초대 민선시장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후 당시 현안이던 굴업도 핵 폐기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켰고, 인천 방송국 유치·개국, 인천항 확충, 인천 국제공항 명칭 확정, 제 1기 도시지하철 건설, 2002년 월드컵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소외 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시민에 대한 지원 확대,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회관 설립,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관 건립,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낙도 어린이 지원 강화, 청소년 수련원 건립 등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력한 결과로, 한국능률협회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인천시가 행정 서비스가 가장 좋은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제 2대 민선시장으로 다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동북아 정보·물류 거점도시로 거듭날 인천,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진 인천을 계획대로 완성하기 위해 인천시민과 하나가 되어 노력할 것입니다.

▶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신 사업은?

양질의 의로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시설 및 장비

의 개선사업으로, 지난 해 7억 5천 9백 만원을 투입하여 보건지소 등 6건의 시설 신축 및 장비를 보강한 바 있습니다.

새해에는 남구 보건소의 신축과 도서벽지 주민 한방진료 등의 사업을 강화하여 45억 7천 5백 만원을 투입,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일본 뇌염 등 전염병 예방접종 41만명, 영유아 예방접종 15만 2천명에게 실시하는 한편 클레라 11,000건, 장티푸스 5,800건의 보건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조기발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치매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로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을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2천년까지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88,878명의 의료보호대상자를 선정하여 309억 3천 5백만원을 진료비 등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들러 40세 이상 의료보호 대상자 중 1,100명을 선정, 위암·간기증·유방암·자궁암의 무료 검사사업을 전개하여 암 등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해 소외받는 계층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체전에 대비해 시민 다소비 식품 26종 208개 품목을 선정·집중 관리하고, 희판매업소 655개소에 수확관수 살균기를 설치토록 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방문 보건사업, 보건교육, 구강보건 사업 등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시민 복지 수준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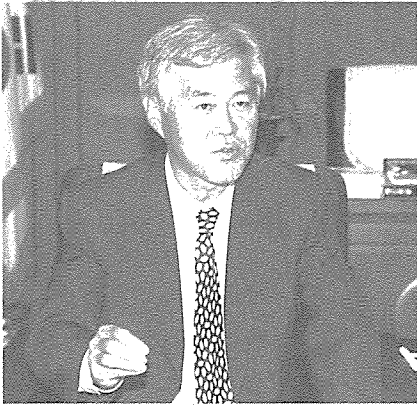
▶ 21세기를 앞두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한 가장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21세기는 희망의 시대, 최첨단 정보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은 21세기 세계 속의 인천으로 거듭나기 위해, 아·태 지역 관광중심지, 첨단 정보산업의 중심지, 첨단 물류시스템을 갖춘 국제 항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송도 미디어밸리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처럼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벤처기업의 꿈을 현실로 바꾸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진 땅입니다. 소프트웨어파크,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파크, 멀티미디어 정보센터, 지원단지 등으로 구성될 미디어밸리의 입주가 2001년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 인천시는 이곳에 해외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 유럽을 비롯해 미국·일본·이스라엘 등지를 누비며 투자유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인텔·휴렛패커드 등 560여 개, 국내외 기업이 입주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천은 또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150여 개의 섬, 개국·개화 문화 유적, 전적지 등 조화된 관광지가 많은 역사적 고지입니다. 따라서 2천 년대에는 세계인을 누구나 오고



- ◎ 경기도 김포 출생 (1945)
- ◎ 서울대 법대 졸업(1973)
- ◎ 구 신민당 총재 공보비서(1980)
- ◎ 민주협 대변인(1984)
- ◎ 신한민주당 임시대변인, 부대변인, 정책위원(1985)
- ◎ 통일민주당 창당 발기인(1987)
- ◎ 제 13대 국회의원, 국회 내무위원, 통일정책특위 위원(1988~1992)
- ◎ 통일민주당 총재 비서실장(1988)
- ◎ 통일민주당 정책위원회부의장(1989)
- ◎ 민주자유당 부대변인(1990)
- ◎ 제 7대 인천직할시장(1993~1994)
- ◎ 인천광역시 1,2대 민선시장(1995~현재)

싶어하는 희망의 도시, 즐거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관광휴양지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는 도시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213만 평의 대규모 관광지를 유유·무의도에 조성하여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반 위락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2012년경이면, 인천은 국제 휴양리조트로 이름을 날리게 될 것입니다.

또 2001년 인천국제공항 완전 개항과 연계하여 공항도시 건설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종·유유 지역에 국제 자유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외 기업활동에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는 도시로 만들어 아태 경제권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도록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은 전통적인 국내 제1의 관문 항구도시로서 세계적인 항구로 도약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2천년 까지 지상 40층 규모의 국제 여객사실이 건설되고 북항 개발, 남항 확대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개발이 완료되는 2011년에는 허역 능력이 현재의 4배에 가깝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류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대신 그린벨 국제 경쟁력 확보, 수출입 활성화, 더 나아가 지역·국가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해오셨는데,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서울대 법대에 진학하던 첫 해인 1964년, 굴욕적인 6.3. 한일협정 반대 시위에 참여한 후 사회법학회·농촌법학회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65년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 후 군에 입대했다가 '69년에 복학해 입학한 지 10년 만에 대학졸업장을 받았습니니다.

그후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1980년 신민당 총재 비서를 맡게 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80년 '서울의 봄' 실패 후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민주협 결성에 참여했고 민주협 대변인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8년 13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4년간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나라 내무행정의 문제점, 지방행정·경찰행정의 개선방안 등을 깊이 있게 연구·체득하면서 행정가로서의 경험을 쌓기 시작했고, 1993년 인천시장으로 부임함으로써 본격적인 행정을 맡게 된 것이지요.

▶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오신 소신이나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우리 집 가훈이 '정직'과 '성실'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정치나 행정에서는 이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직'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정책을 입안·제기하고 협의해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건강을 위해 하시는 일이 있다면?

비빔 일정에 쫓기다보니, 중요한 줄 알면서도 건강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평소 가벼운 운동과 세 끼 식사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좋아하는 등산도 갑니다.

취미로 바둑을 즐기는데, 머리도 식히고 생각도 정리하는데는 그만이지요.

▶ 마지막으로 인천시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살기 좋은 인천, 21세기를 향한 미래의 도시, 희망의 인천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인천의 주인인 인천시민의 하나된 노력이 없다면 그 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 동안 IMF 등으로 인해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도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어려움을 딛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저 역시, '서민에게 힘이 되는 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72